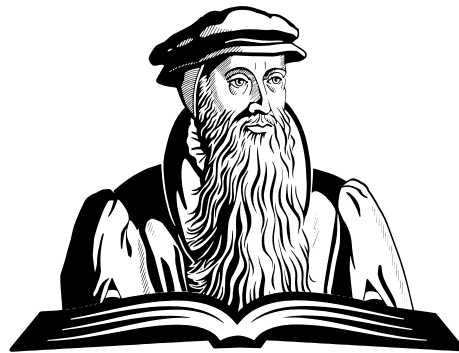

비디오 강의 학습 단계: 성경 신학

강의 1: 소개

강의 발표자: 로버트 맥컬리 목사님, M.Div



The John Knox Institute
of Higher Education

존 녹스 고등 교육 연구소 우리의 개혁된 유산을 전세계 교회에 위임하며

존 녹스 고등 교육 연구소

우리의 개혁된 유산을 전세계 교회에 위임하며

© 2019 존 녹스 고등 교육 연구소

판권. 이 출판물의 어떤 부분도 출판사의 서면 허가 없이 검토, 의견 또는 장학금을 목적으로 간단한 인용을 제외하고는 어떤 형태로든 또는 이익을 위해 어떤 수단으로도 복제될 수 없습니다.

출판사, 존 녹스 연구소, P.O. Box 19398, Kalamazoo, MI 49019-19398, 미국

달리 표시하지 않는 한 모든 성경 인용은 공인 킹 제임스 버전으로 합니다.

웹사이트방문: <https://ko.johnknoxinstitute.org>

로버트 맥컬리 목사님은 스코틀랜드 자유 교회의 (continuing) 회중인 사우스 캐롤라이나 그린빌에 있는 그린빌 장로교회에서 복음목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www.freechurchcontinuing.org

학습단계

성경 신학

30 강의

로버트 맥컬리 목사님 M.DIV.

21 장 구약 · 9 장 신약

구약 강의들

1. 소개
2. 창조
3. 타락
4. 노아
5. 아브라함
6. 족장 I
7. 족장 II
8. 출애굽
9. 시내산
10. 성막
11. 희생제물
12. 제사장
13. 유업
14. 다윗
15. 시편
16. 솔로몬
17. 성전
18. 왕국
19. 예언자
20. 포로기
21. 회복

구약 강의들

22. 성육신
23. 속죄
24. 부활
25. 오순절
26. 교회
27. 연합
28. 삶의 적용
29. 사명
30. 영광

강의 1

소개

강의 주제:

성경 전체가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은혜의 복음 안에서 구원의 메시지를 드러냅니다. 우리는 구약과 신약전서에서 발견되는 구속의 역사의 단계를 통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이 계시되는 것을 밝혀냅니다.

본문: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누가복음 24:27, 44).

강의 스크립트 1

우리는 구약성경을 어떻게 해석하고 설교하고 있습니까? 구약성경은 신약성경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을까요? 더 구체적으로 묻자면 구약성경은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구원과 복음의 메시지와는 어떻게 연결되어 있을까요? 구약성경이 현대인들에게 어떤 실제적인 의미가 있습니까? 신구약 성경 전체에 흐르는 가장 중요한 주제는 무엇이며 우리는 이 주제들을 현대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이 과정을 하는 목적은 여러분이 성경을 더 깊이 이해하고 하나님께서 친히 성경을 통해서 계시하신 바로 그 하나님을 알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 잘 알기를 바라고 성경의 메시지에 대해서 더 잘 이해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은 이 과정을 통해서 유익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수업은 포괄하는 과정이 아니라 서론에 해당하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이 기초를 마련하고 지식을 쌓을 수 있도록 돕는 과정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에게 매일매일 물고기를 줄 수도 있지만 물고기를 잡는 도구와 방법을 알려줄 수도 있습니다. 이 과정은 여러분 스스로 성경에 있는 신학을 연구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고 그에 필요한 도구를 제공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평생에 걸쳐서 이를 추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건물의 벽돌을 놓는 일을 시작하기 전에 이번 과정이 여러분에게 어떤 도움을 주게 될지를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열왕기상 10장과 병행하는 본문인 역대하 9장에 보면 위대한 왕조였던 시바의 여왕에 대한 기사가 있습니다. 이 여왕은 솔로몬 왕을 만나서 대화하기 위해서 긴 여행을 합니다. 그런데 그 대화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참으로 놀랍습니다. 이 이야기를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이 이야기를 성경에 포함시켜 놓으셨을까요? 이 메시지를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자, 이 수업의 목적은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열왕기상 10장에 대한 이런 질문들을 머릿속에 항상 생각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이 첫 강의의 말미에 다시 이 질문으로 돌아와서 해답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신학에 대한 이 강의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먼저 우리가 사용할 용어에 대한 정의를 해야 합니다. 이 수업이 다루고자 하는 정확한 내용은 무엇일까요? 먼저 “신학”이라는 용어부터 생각해 봅시다. 신학의 의미가 무엇이나는 물음입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적”이라는 용어의 중요성을 보고 이번 과정 전체를 배경으로 볼 때 이 두 단어가 합쳐졌을 때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신학”이라는 말입니다. “신학”이라는 용어의 가장 기초적이고 간단한 정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은 누구시며 그분은 어떤 일을 하셨는가?”에 대한 대답입니다. 여러분은 혼자서 “신학이 필수적인가? 이런 지식이 정말로 필요한가?”라고 궁금해했던 적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작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이 떠오르든지 그것이 당신에 대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에 가장 큰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영광을 인류에게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성경적인 기독교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중심을 두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만물의 가장 중심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우주의 역사는 창세기의 가장 처음에 나오는 장들에 나타난 우주의 창조에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이에 대해서 시편 기자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시19:1 창세기에 나오는 역사의 시작부터 요한계시록 21:23에 나오는 역사의 정점과 결론에 이르기까지 마찬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 21:23에는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 데 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인류는 본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의 제1문은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소요리문답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이뇨?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입니다”고 말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구속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펼쳐 보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것이지만 이 역사는 그리스도의 성육신에서 절정을 이룹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 일은 이 세상에서 가장 우선적인 일이며 하나님께서도 친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의 말을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렘 9:23, 24)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 일은 세상에서 가장 우선적인 것입니다. 또한 모든 참된 신자들은 하나님을 알기를 가장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러한 사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몇 가지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모세를 보시면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출 33:13) 뒤에 나오는 다윗에게서도 동일한 모습을 발견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지은 한 시편에서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와 집에 살면서”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여호와와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기”(시 27:4)때문입니다. 신약 성경을 보더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7:3에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기록한 신약성경의 말씀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열정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빌 3:8)라고 말합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빌 3:10)라고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가장 우선 순위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계시되었다는 사실도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에 대한 가장 충만하고 최종적인 계시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골 1:15)이라고 설명하고 다른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존재의 형상이시라”(히 1:3)고 표현합니다. 그러므

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지식은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통한 하나님의 자기계시와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 중심이라는 말은 그리스도 중심이라는 말입니다. 이런 이유로 요한은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 1:14)고 말합니다. 요한은 계속해서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되 아버지 품 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요 1:18)고 말합니다. 이제 우리는 곧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이 지식과 그것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더 논의할 것인데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는 실천적인 결과도 포함된다는 사실도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단순히 이론적이거나 순수하게 지적인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실천적인 결과가 따라옵니다. 17세기 네덜란드 개혁주의 신학자였던 페트루스 판 마스트리히트 (Petrus van Mastricht)가 말했듯이 “신학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는 지식”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이 보는 것을 통해서 그들은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고후 3:18)고 말합니다. 요한일서 3:2, 3도 이와 비슷하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신학, 곧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본질적으로 실천적입니다. 신학은 모든 신자의 삶에서 복음의 열매 곧 복음적인 경건이라는 열매를 맺도록 합니다. 무엇보다 신학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경배하도록 한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보고 알게 되면 그분을 경배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장 먼저 “신학”이라는 용어가 가진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왜 이 사실이 중요한지를 알게 됩니다. 둘째로 “성경적인”이라는 말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우리 수업의 명칭은 “성경신학”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리셨으며 특히 성경을 통해서 자신을 알리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자신에 대해서 기록한 책으로서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책임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에 대한 지식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보여 주셔야 인간이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계시”라고 부릅니다. “계시”는 어떤 것을 가렸던 것을 치우고 어떤 것을 드러낸다는 의미입니다. 성경은 잃어버린 인류에게 자신에 대한 지식을 가리고 있던 것을 치우고 그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당연히 성경은 복음 곧 하나님과 화해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수업은 성경에 대한 연구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16에서 보듯이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신 성령이시므로 성경에는 신적인 권위가 있습니다. 또한 성경 66권의 모든 글자가 하나님께 의해서 온전히 영감되었으며 성경 어디에도 오류가 있을 수 없으므로 성경에 기록된 내용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에 대하여 완전히 신뢰할 만한 기록입니다. 이렇게 펼쳐진 구속의 역사를 읽을 때 우리가 읽고 있는 것은 이러한 역사적인 사건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기록하신 것으로서 오류가 없고 실수도 없는 계시입니다. 결국 이 말은 우리가 성경 전체를 알아야만 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전체 성경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모든 계시를 담고 있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는 한권의 분리할 수 없는 책으로서 일관되고 통일된 메시지를 제공합니다. 성경은 유일하신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의 영광스러운 이야기 안에 한 분 하나님과 구원의 유일한 방법과 하나님의 유일한 백성에 관한 이 모든 내용을 제공합니다. 그러므로 전체 성경(Bible)이야말로 기독교의 성경(Scripture)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성경은 구약으로 시작합니다. 요즘도 신약성경 안에 그리스도와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모든 것이 다 들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구약성경이 말하는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구약이 그리스도와 복음에 대해서 얼마나 충만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는 아마 모를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전체 성경이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 구약성경이 없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불완전한 지식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자신의 내적인 경험에 대한 내용을 가장 풍성하게 배울 수 있는 곳은 바로 시편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요한복음에서 우리는 시편에 대한 더 많은 내용을 들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구약성경은 전체 성경의 4분의 3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제공하시는 내용의 4분의 3이 없이 살아남을 수는 없습니다. 구약성경이 필수적인 또 다른 이유는 신약성경을 이해하기 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약성경은 이미 구약성경에 있는 내용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며 반복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약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게 되면 우리는 신약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실수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사실 신약성경에서 성경이라는 말이 나오면 대부분 구약성경을 가리킵니다. 구약성경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추가 해 주신 신약성경과 더불어서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읽고 암기하고 연구했던 성경이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딤후 3:15)고 말할 때 디모데가 그리스도와 구원에 대해서 알게 된 것은 바로 구약성경을 통해서였습니다. 구약성경에 대한 지식은 신약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신약성경은 구약성경을 전제로 기록된 것입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구약성경에서 발견하는 역사적인 사건들뿐만 아니라 신약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주제와 언어와 교리와 원리는 구약성경의 기초 위에서 해석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신약성경을 읽을 때 자주 구약성경을 상기하게 되는 것은 결코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같은 의미에서 우리는 신약성경을 통해 구약성경을 바르게 해석해야 합니다. 구약성경은 읽을 때 반드시 신약성경에서 이루어진 성취의 빛 아래서 읽어야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공부를 하는 동안 분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전체 성경이 필요하고 전체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에 대한 지식을 제공합니다. 신구약성경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성경 말입니다. 물론 복음은 그리스도와 그 분이 자신의 백성과 하나님을 화해시키기 위해서 하신 일에 대한 좋은 소식을 담은 메시지입니다. 예를 들면, 이 사실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첫째 주일 두번째 질문에 잘 요약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당신이 이 평안을 누리면서 복되게 살고 죽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사실들은 몇가지입니까?”라고 묻고 있습니다. 답변은 “세가지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첫째는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심각한지이고 둘째는 내 모든 죄와 비참함에서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이며 셋째는 이와 같은 구원에 대하여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표할 것인가입니다” 복음은 신구약성경 전체의 핵심입니다. 바울은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경전체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함께 설교했습니다.

이 사실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4, 15장에서 우리는 성령의 사역이 그리스도의 것들을 취하여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라는 사실을 배우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역할은 성자를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반드시 열심을 다하여 신약성경 뿐만 아니라 구약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전파하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신약성경도 구약성경이 그리스도와 복음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리스도께서 구약성경에 대해서 증언하시는 말씀을 들어보세요. 그리스도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요 5:29) 이어서 주님은 바리새인들에게 도전하시면서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요 5:46, 47)라고 하셨습니다. 부활 이후에 그리스도께서는 엠마오로 가는 길을 걸으셨고 자신의 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들과 만나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읽습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은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그리스도께서)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눅 24:27) 같은 장(눅24장)에서 조금 후에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44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신다면 여러분은 구약성경도 역시 사랑해야 마땅합니다.

구약성경은 그저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모아 놓은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단순히 도덕적인 교훈의 목록이라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구약성경의 장엄한 메시지는 그리스도와 그 분이 제공하시는 구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는 구약성경이 현대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얼마나 적실한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서, 바울이 어떻게 구약성경과 그리스도와 신약성경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연결시키는지 한 번 보세요. 바울은 갈라디아서 3:29에서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에 대해서는 다음 강의에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베드로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세요.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

고하나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벧전 1:10-12)

잠시만 이에 대해서 생각해 보세요. 만약 구약선지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구원에 대해서 배우기 위해 자신들이 전한 내용에 대해서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다면 우리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에 대해서 배우기 위해서 구약성경을 얼마나 더 살피고 연구해야 할까요? 특히 지금 우리는 구약의 내용들이 온전히 성취된 신약성경의 빛 아래서 구약을 읽을 수 있으니 말입니다. 위대한 개신교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는 올바른 결론을 내렸습니다.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바르고 유익하게 읽는 사람이 그 안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 다음으로 그는 반드시 영생을 발견하게 된다. 반면에 그리스도께서 내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 하늘에서 내려오셨고 인간이 되셨으며 고난받으시고 죽으셨으며 장사되셨다가 부활하여 하늘로 올라가신 결과 그 분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화해되고 나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으며 은혜와 의와 영생을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기 위해서 내가 모세와 선지자들을 연구하고 이해하지 않는다면 성경을 읽는 것은 나의 구원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 사실은 “성경적인”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다루는 이 주제에 속한 중요한 요점으로 우리를 인도하는데 이는 이 수업의 범위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제 우리는 잠시 성경적인 구속사에 대해서 생각해야 할 차례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에 이르는 성경역사 전체에 걸쳐 연속적으로 계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구속사를 통하여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셨는데 단순히 하나의 큰 행위로 다하신 것이 아닙니다. 구속사 혹은 우리가 구원역사로 부르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점차적으로 펼쳐지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시작하여 역사적인 행위가 진행되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 분의 인격과 사역에 대한 신약성경의 설명이 충만히 주어지는 방향으로 전개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의 저자이시듯 하나님은 또한 성경에 기록된 역사를 작정하시고 진행하신 주권자이십니다. 역사(History)는 그 분의(His) 이야기(story)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친히 자신을 계시하셨던 실제적이고 참된 사건들에 대한 영감된 기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계시는 시간 속에서 점점 분명하게 펼쳐졌습니다. 성경전체에 걸쳐서 시간이 흐름에 따라 그것이 훨씬 더 충만하게 드러났습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 의미는 우리가 주어진 어떤 성경본문이나 성경의 이야기를 성경전체의 메시지와 연결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약성경의 모든 부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및 사역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보아야 하고 이를 통해서 그것들이 그리스도인들과도 어떤 관계가 있는지도 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수업은 구속에 대한 성경역사 곧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와 전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을 활짝 펼쳐 보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계시된 하나님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신 일에 대하여 배울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열왕기상 10장과 역대하 9장에 기록되어 있는 시바의 여왕과 솔로몬 사이의 대화에 대한 우리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왜냐하면 이 대화를 통해서 신학과 성경과 구속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말했던 모든 것들이 이 구체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설명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시바의 여왕과 솔로몬의 이야기를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이 이야기를 성경에 포함시키신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이 이야기는 우리와 어떤 상관이 있습니까? 시바의 여왕과 솔로몬은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자, 이 강의에서 우리가 배웠던 것을 적용할 때 다른 성경을 활용하면 이를 밝히고 이 이야기가 그리스도와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인들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이 예시는 이 과정이 여러분이 성경을 연구하는데 있어서 어떤 도움을 줄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열왕기상 10장의 시대로 돌아가 봅시다. 시바의 여왕은 아득히 멀리 떨어진 곳에서 솔로몬의 명성을 듣습니다. 여왕은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지혜를 보았습니다. 여왕은 자신의 질문에 대한 솔로몬의 대답을 들었습니다. 솔로몬의 집과 그가 먹는 음식과 솔로몬의 모든 영화를 보았습니다. 여왕은 솔로몬의 신하들에게 온 축복을 보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열왕기상 10장에 나온 여왕의 반응에 주목하세요. 5절 마지막을 보시면 “크게 감동되어(no more spirit)”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에서 “감동되어(spirit)”라는 말은 “호흡”이라는 말로도 번역될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의 허파에서 나오는 호흡과 같은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열왕기상 10:5에서 언

급하고 있는 것은 여왕이 솔로몬에 대해서 본 모든 것들 들은 모든 것들은 그녀의 호흡을 가져가 버렸다는 말입니다. 계속해서 7절에 보면 “~에도 불구하고” (이 말은 여왕의 말입니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서 여왕은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9절에서 그녀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므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이 이야기는 동떨어진 채 고립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는 역사 속에 있는 하나님의 구속계획이라는 더 넓은 배경 속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그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몇개의 점들을 연결해야 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약속, 곧 다윗의 자손이 그의 왕좌에 영원토록 앉을 것이라는 약속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 더 구체적으로 토론할 것이지만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 약속이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사야 11장 1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예언이 주어진 것을 봅니다. 바로 이런 예언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신약성경을 봅시다. 그리스도는 요한계시록 22장에서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계22:16)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났던 때를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그리스도)에게 주시리니”(눅 1:32) 나중에 베드로는 오순절날 설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행 2:29, 30) 우리는 이와 같은 것을 신약성경 안에서 반복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이에 대한 사실을 기록하여 로마의 성도들에게 편지로 보냈습니다.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이었으며 그의 왕위를 잇는 후계자였지만 그는 다윗의 더욱 위대한 아들이 오실 것을 가리켰습니다.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고 그분의 영원한 왕국은 다른 모든 나라보다 뛰어나게 될 분으로서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평강의 왕의 나라는 솔로몬이 다스렸던 평화의 시기보다 더 뛰어날 것입니다. 이것을 시편 72편과 비교해 보세요. 이 시편의 제목은 “솔로몬을 위한 시”입니다. 이 시편은 10절과 15절에 시바의 여왕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시편이 가리키는 것이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통치이며 다가올 그리스도의 왕국 안에서 성취될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시편에 나온 말로 나타내면 이 왕국은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 끝까지 다스리리니”(8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편의 마지막 부분인 17, 19절에 나타나는 그리스도에 대한 대단한 표현을 한 번 읽어 보세요.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제 신약성경으로 돌아가 봅시다. 신약성경에도 이 모든 것이 다 나타납니다. 그리스도는 친히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심판 때에 (시바의 여왕을 의미하는) 남방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왜 그렇습니까?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마12:42) 이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구속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전체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계시이며 구원과 복음의 메시지에 대한 계시입니다. 이제 남은 성경에 대한 우리의 지식과 성경 역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목적의 큰 그림을 바라보면서 열왕기상 10장으로 돌아갑시다. 열왕기상 10장으로 돌아갈 때 그리스도와 그분의 나라에 대해서 배울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우리는 열왕기상 10장을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 또한 복음 사역자들은 반드시 영적인 실체의 빛 아래서 그 본문을 설교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위대한 평강의 왕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주셨습니다. 그 분 안에는 솔로몬을 뛰어넘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피조물인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그분의 지혜를 듣고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왕국의 영광을 보고 알기 위해서 멀리서부터라도 와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우리의 호흡을 멈추게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천국에 도착해서 이 왕을 보고 이 구세주를 볼 때 우리들은 그 때 시바의 여왕과 더불어 말하기를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되니 그분(그리스도)은 나의 모든 기대보다 더 뛰어나도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에게 자신이 이 왕의 하인이라는 사실은 모든 직업 중에 가장 복되고 행복한 지위이며 직업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좌에 안치시고 그의 구속받은 백성들을 향한 자신의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것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아십니까? 열왕기상이 그리스도에 관한 모

든 것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 분의 구속에 대한 모든 것이라는 사실을 압니까? 그 분의 왕국과 자기 백성에게 넘치는 축복에 대한 모든 것이라는 것을 압니까? 그러니 이 내용은 현대 그리스도인들과도 정말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이 강의 초반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는 것을 돕기 위해서 마련된 이 과정이 제공하는 유익을 설명하기 위한 한가지 예시입니다. 남은 모든 강의에서 우리는 구속사를 관통하는 가운데 성경의 신학을 탐구해 나갈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창세기의 가장 처음에 나오는 몇 장에서 시작하여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 있는 다가올 역사의 절정에서 마치게 될 것입니다.